출소 기다리는 ‘괴물들’…가석방 없는 종신형, 공론화

새변 “입법 미비…사형 대안으로 지지”
매년 수십명 가석방에 제도 개선 공감대
한동훈 “용납 못할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헌법소원 진행 중…“기준 높여야” 의견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더욱 커지는 가운데, 20~30대가 주축이 된 변호사단체에서 사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 입법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변은 “26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의 실질적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미비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입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를 하며 인면수심 범죄자가 형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피해자가 공포에 떠는 현실을 목도하며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지지하게 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흉악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고조된 상황이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기수는 잔여 형기가 10년이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장기 유기형을 선고 받은 이들보다 중한 형을 받은 무기수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모순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의 제도 ‘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고, 무기수 대부분이 살인 등 흉악범이라는 점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석방되는 무기수가 매년 수십명에 달한다는 지적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형제 폐지 관련 헌법소원 심리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권침해와 예산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무기수의 가석방 기준 자체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기징역형은 (유기형과) 형종이 완전히 다른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가석방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면으로 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의 대용물로서 효과성은 있겠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교화 가능성을 남겨 놓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가석방이 가능한 방향으로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기간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유나기자

더위가 조금이라도 식히게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포그가 나오고 있다.

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

비자 발급 거부 당하자 제기한 2차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 소송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기간은 민사 소송과 같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다. 유씨 측은 선고 당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LA총영사관 측은 이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난달 20일에 송달받았다.

이를 계산할 때 LA총영사관 측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3일까지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번 재소송을 냈다.

2차 소송 1심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며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병역기피 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검찰 송치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30㎝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글이 빠르게 확산되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흉기는 구매했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IP(아이피) 추적을 통해 이씨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고, 이씨는 24일 오후 11시56분께 112 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혀 지구대에 임의동행됐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튿날 오전 1시44분께 지구대로부터 이씨를 인계받아 긴급 체포했고, 2일 후인 27일 구속됐다.

뉴시스